

한성숙 “민생경제 비상상황 타개 총력… AI 대전환 속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AI분야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강조
다주택 매각 여부 질문에는 말 아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현시점을 국정 전반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봤다. 그는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전환과 혁신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치와 소통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각 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명의의 다주택 매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분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택을 지난 5월 처분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 20년 만에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비(非) 정치인 출신인 점과 관련해서는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한다”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김애란 소설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를 인용하며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는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는 문장이 기억났다”고 했다.

이어 코르티즈의 곡 ‘레드레드’를 언급하며 “도가니 사리길 레드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그린’이란 가사가 외달았다”면서 “몸사리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건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인사청문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20년 만에 탄생하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DI “한국경제, 반도체 중심 완만한 개선세”

경제전망 6월호 긍정적 인식 유지
“중동전쟁 지속… 하방위험 가능성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아시아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펴낸 ‘경제전망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호에서는 경기 판단에 대한 표현을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서 ‘경기 회복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하방위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했다”며 “이와 함께,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제품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

소하는 등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2.4% 늘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건설업생산(-5.5%)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8.1%)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1.6%)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3개월 이동평균(3.6%)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5월 들어서는 소비자심리지수(99.2→106.1)가 크게 반등했다.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에 비해 53.2%, 일평균 수출은 60.7% 증가했다.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통상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유 제품은 원유 수급 차질로 일평균 수출량

이 20.1% 줄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4월 7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서비스업(33만2000명→21만4000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20대 고용률이 1.8%p 하락하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심화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뛰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24.2% 급등하면서 상품 물가가 3.5% 올랐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상승률도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금리와 환율 등이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월 말 3.60%에서 5월 말 3.73%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4월 말 1483.3원에서 5월 말 1507.9원으로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시진핑, 북한 국민 방문… 경제세계화 제안

양국 비핵화 문제 두고 미묘한 긴장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에 북한을 국민 방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지형의 재편에 나섰다.

시 주석은 8일 정오께 부인 평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민 만찬과 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단순한 할렘을 넘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극화 국제 질서 재편에 북한을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를 한층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는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8일 북한 평양의 한 건물 외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앞서 북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방북 직전인 우리농 농축시설과 미사일 공장을 잇달아 시찰했으며, 김여정 당 부부장은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합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빼놓은 채, 각자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비핵화’라는 말 대신 ‘사회주의 연대’를 내세워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적대적 행보를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metro

과기부, 첨단 GPU 사업 ‘네이버·삼성SDS·엘리스그룹’ 선정

‘AI 고속도로’ 구축 본격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올해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현존 최고 성능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국내 산·학·연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 등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첨단 GPU 확보·구축·운영지원 사업’ 참여 기업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SDS, 엘리스그룹 등 3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공모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개 클라우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

는 서류 적합성 검토와 사업 역량 평가를 거친 뒤 데이터센터 상면·전기설비·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한 현장 실사와 사업비심의 등을 거쳐 최종 3사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 3사와 협력해 차세대 고성능 GPU 총 9704장을 확보·구축하고 민간·공공의 AI 혁신에 필요한 GPU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사와 협력해 확보되는 GPU 물량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초고성능 모델인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7688장이다. 기업별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베라루빈 1008장·B300 3112장 ▲삼성SDS가 베라루빈 1008장·B300 2016장 ▲엘리스그룹이 B300 2560장을 각각 확보·구축한다. 전체 확보 물량 9704장 중 정부 활용분

인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4360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고도화 지원 등에 활용된다. 초거대 AI 모델 학습 등 민관의 대규모 AI 혁신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B300 3328장은 참여 CSP들이 자체 활용한다. 각 CSP가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통해 AI 산업·연구 현장의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 자체 AI 모델·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SP는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서비스 역량 및 자체 AI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AI 개발·활용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새만금 투자·AI 가속기 공급 확대 등 논의

» 1면 ‘총수들과 연세회담…’서 계속

황 CEO는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분야의 거인이자 전문가로 파트너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우리는 AI와 현대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로보틱스의 미래를 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황 CEO에게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고 황 CEO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부장(부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AI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싸고 협력

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CEO는 지난 7일 두산그룹과도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다. 두산의 제품과 기술 및 제조역량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피지컬 AI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오랜 기간 축적한 제조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 로보틱스, 첨단소재 분야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AI팩토리 시대를 맞아 우리 사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는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